대낮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들이 낮에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교통 전문가와 운전교육 종사자들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뉴시스

13시간짜리 면허…안전 불감증 주범

운전교육은 생명교육
빨리빨리보다 안전이 우선

10 안전운전 불감증, 갈 데까지 가보자?

최근 연예인 등 음주운전 사건사고 빈발
의무교육시간 축소로 안전 소홀이 원인
쉽게 취득한 면허증…안전도 쉽게 여겨

최근 경남 김해 서부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강모(71), 신모(45)씨 두 명을 구속했다. 특히 강씨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두 명을 치어 전치 3주와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제주도도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철퇴를 빼들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허모(42)씨를 도로교통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차량을 압수해 몰수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개그맨 이원구는 지난 5일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힙합가수 겸 프로듀서 주석도 4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역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너무도 부족한 운전교육시간

경찰이 이처럼 음주·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발생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통 관련 전문가와 운전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안전운전교육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평생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생교육'은커녕 가장 중요한 운전면허 취득 전 '사전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에 불과하다. 학과교육 5시간, 장내 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 도합 13시간이다. 원래 이렇게 교육시간이 '각박'했던 것은 아니다. 60시간 수준이던 의무교육시간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이후 13시간으로 급감한 것이다.

수험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간소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 안전도 '절감'되어 버렸다. 간소화 정책 시행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각종 교통사고 관련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13시간 속에 '안전'은 없다

운전교육 현장에서는 "13시간의 교육시간만으로는 안전교육은커녕 기능교육도 제대로 실시하기 어렵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영리한 원숭이도 딸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무면허 운전'을 줄이기 위해 기관에서 '면허증을 남발하는' 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운전면허 취득자 중에는 "면허증을 돈 주고 산 기분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는 무려 8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면허 소지자는 운전을 못 하고, 무면허자는 도로에서 활개를 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흉인 음주·무면허 운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교통·운전안전교육이 절실하다. 교통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다루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심지어 미취학 아동도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교통·운전안전교육은 면허를 취득하기 전부터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운전교육 13시간 속에 '안전'은 없다. 교육시간을 늘리고, 제대로 된 안전과 기능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교통칼럼 허억박사의 푸른 신호등

운전교육 72시간·임시면허 2년 한국 운전면허, 독일처럼 바꾸자

"운전 중 부득이 법규 위반을 할 경우 주위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신지 먼저 확인하라."

이 말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한국 동포께서 하신 말이다. 즉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젊은 사람들의 교통법규 위반 모습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를 자칫 방치할 경우 운전자의 위반 의식이 습관화되어 결국은 향후 교통사고로 연결 된다는 말씀이다.

이럴 때 잘못한 운전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법규를 지킨 선의의 피해자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다 보니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게르만 민족의 저력이며 독일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면허 취득해도 2년간 감시

이런 우수성은 운전면허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은 운전면허 따기가 가장 힘든 나라 중 하나이다. 총 7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개, 빗길, 눈길 등 악천후 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또한 심야운전, 시외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 악조건 상황에서 안전운전하는 방법도 습득해야 한다. 취득 비용도 2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비싸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면허 취득을 해도 정식 면허를 주지 않고 임시면허증을 준다. 향후 2년간 법규 준수 여부, 추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식 면허증을 주는 관찰면허 제도를 198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임시면허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많은 벌금과 함께 임시면허 기간을 4년으로 연장시킨다. 즉 이 기간 동안 안전운전 방법을 충분히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독일이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운전면허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칫 너무 쉽게 딴 면허가 나 자신과 상대방의 목숨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17세가 되면 운전 학교에 입교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 양보운전의 중요성 등 양질의 운전자로 갖추어야 할 각종 소양 교육과 자동차의 구조, 특성 등 예비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습득한다.

●독일보다 강력한 운전면허시험제도 도입해야

교통 선진국인 독일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통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너무 쉽게 딸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제도로 인해 불량 운전자들이 대거 도로로 방출되고 있다. 운전 조작 능력과 위험 대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 운전자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를 낼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운전자들이 연 100만 명이상 씩 양산되고 있다.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조속히 독일의 운전면허 제도로 확 바꿀 것을 촉구한다. 아니, 독일보다 더 강화된 운전면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일보다 3배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사)어린이 안전학교 대표·도시공학박사·가천대 겸임교수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배낭이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초경량, 다기능 풀옵션 장착, 세련된 디자인, 사상초유의 가격 49,800원

"혼을 담았다"고 감히 입을 엽니다. 고품격 퀄리티, 제품의 실용성, 용도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블랙라이언 10월 신상 등산배낭과 등산화는 최고 스펙을 자랑합니다. 이런 환상적인 제품을 보기 드문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소비자와의 직거래입니다. 15주년을 맞는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주)바이원클럽(대표: 이춘식)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심차게 론칭한 명품 블랙라이언의 힘을 전달코자 합니다.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또 하나의 걸작

말이 필요 없이 찜하고 쇼핑리스트에 올려도 결코 후회 없는,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 기획기간 만도 장장 6개월, 신고 메고 산을 누비고, 불편한 점과 단점을 찾아내 고치고 고쳐 탄생한 제품, 혼신을 다해 만든 혼을 담은 명품입니다. 바이원클럽 회원님의 눈은 정말 무섭습니다. 바이원클럽 월간지 블랙라이언 9월호에 제품 샘플 사진을 찍어 신상품코너에 소개만 했는데, 선주문 예약콜이 빗발쳐 상담원을 놀라게 했습니다. 2차 물량을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믿고 살 수 있는 제품만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고품격 퀄리티와 실용성, 합리적인 기능, 독보적인 디자인, 탁월한 성능을 탑재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구입 할 수 없는 초절제 가격은 그냥 저렴한 제품이 아닙니다. 성능과 품질, 원단, 재질 등이 최고급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혼을 담은 블랙라이언 명품 커플배낭
등에 착 달라붙는 이 느낌은 또 뭐지?

BLACKLION® KING OF THE OUTDOOR

❶ 깐깐한 스틱 스트랩 = 스틱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고정
❷ 레인 커버 = 폭설이나 폭우가 몰아쳐도 배낭의 내용물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❸ 편안한 허리 벨트 = 몸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체력소모를 줄여준다.
❹ 가슴 벨트 = 무게중심을 가슴 쪽으로 유지시켜주며, 하산시 배낭의 흔들림 잡아주는 역할
❺ 헤드 커버 = 간단한 소지품이나 물건을 넣는 수납공간은 기본, 점퍼나 바람막이를 걸칠 수 있는 기능 완비.
❻ 핸드 캐리어 = 배낭을 옮길 때나 보관 할 때 걸어두는 장치
❼ 사이드 포켓 = 물병이나 스틱가방을 간편하고 쉽게 보관하는 주머니
❽ 배낭 하단 지퍼 = 배낭 밑에 있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게 실용성을 강조한 센스
❾ 좌우 사이드 끈 = 배낭안의 물건이 좌우로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잡아주는 작은 배려

제품명 블랙라이언 커플배낭 (방수 원단) 사이즈 Q-30, Q-25
회원특가 Q-25 1개 ₩99,000 → ₩49,800 Q-30 1개 ₩138,000 → ₩69,800 (Q-25, Q-30 2개 구입시 1만원 할인, 500분 한정)
제품신청 1544-0247 쇼핑몰 www.blacklion.co.kr